

얼마전에 우리나라의 未來를 걱정하고 발전시키려는 한 모임이 정읍 내장산에서 있었다. 멀리 와 가까이서 온 참석人士들은 한결같이 이 맑은 공기와 淸明한 햇빛, 그리고 조용한 숲이 주는 상큼한 내음과 분위기에 감탄사를 연발하였다. 바로 먼지와 煤煙으로 찌든 도시에서 벗어나 이런데 와 보니 아직 살아있는 自然이 그만큼 좋다는 뜻이다.

그러나 아무도 우리나라에 이 自然을 연구하는 국가적 중심기관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았다. 우리가 이 나라를 錦繡江山이라고 부르고 노래하지만 이 나라의 역사, 미술, 민속은 연구해도 山河와 갖가지 생물이 어떻게 변화해서 오늘의 우리 자연과 환경을 이뤘고 또 잘 보호 유지되어야 하며 한국의 祖上들이 이러한 자연에 어떻게 적응하면서 살아왔는지를 깊이있게 연구하는 국가기관이 없는 것이다. 이것은 곧 우리의 국민적 意識이나 민족적 感性이 인문사회나 미술적 視覺에서만 관찰되었을 뿐 우리의 독특한 자연에 바탕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하며 이것은 곧 國立自然史博物館이 우리에게 아직 없다는 사실로도 대변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에게 생소한 自然史博物館이란 무엇인가?

바로 자연속에 있는 동물, 식물, 광물 그리고 생태계와 인간의 과거와 현재에 관계된 표본을 수집하고 연구하여 지식을 늘리고 그 결과를 展示와 여러가지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이 쉽게 학습하게 하는 기관이다. 즉 다름아닌 자연에 대한 학술연구와 대중교육을 위한 市民大學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연이 나타내는 과학적인 원리, 類型, 특징을 알아내고 個性과 특유의 가치를 끌어냄으로써 우리의 독특한 자연에 대한 인식과 나아가서 국민적 自矜心을 싹 틔울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우리의 後代들이 이곳에 보존되어 있는 표본을 통해 우리의 自然이 과거에 어떠한고 또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를 내다볼 수 있는 장소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학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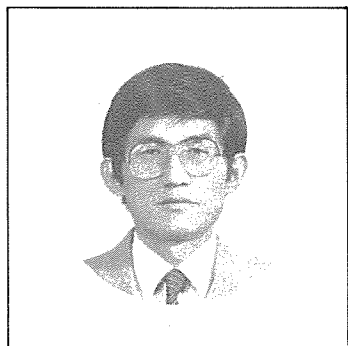
적 目的이외에도 자연보존을 위한 천연保護지구 설정, 滅種생물의 파악과 회복 그리고 遺傳資源으로서의 갖가지 野生種의 유지와 환경변화 탐지 등 생태계의 유지와 활용에 기여할 작업을 하는 곳이며 有用鑛物의 연구와 유전공학적 技法을 통해 실생활과 산업발전에 쓰일 자료를 직접 제공할 수도 있어 우리와 같이 科學立國이 오로지 나라의 活路이고 환경과피로 신음하는 처지에선 더욱 필요한

## 文化國民과 自然史 博物館

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自然史博物館이 세계 각 나라에 과연 얼마나 있는가? 최근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국에는 400여개,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일본에 각각 200여개씩이 되는데 그러한 선진국은 그렇다치더라도 우리보다 낙후된 쿠바에 70여개, 루마니아에 50여개나 되는 데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반면에 한국은 이렇다할 자연사박물관 하나 없는 형편으로 다만 몇몇 대학에 부설로 있으나 제대로의 자연사박물관이라 할 수 없을 정도이다. 어쨌든 우리는 앞으로 10년내에 기술선진

7개국권내에 들겠다는 포부와 계획을 갖고 있으나 자연사박물관 수로 보면 하나도 없는 셈이니 아프리카의 몇몇 나라와 함께 世界最下位에 있는 형편이다. 더우기 美, 英, 佛의 국립자연사박물관들의 所藏 標本數는 엄청나서 美國의 스미소니언자연사박물관에는 8천만점, 영국 런던자연사박물관에는 6천만점, 프랑스 파리국립자연사박물관에는 7천만점이상이 되어 우리나라 학자들도 우리의 固有



李炳勳

全北大교수 · 동물분류학

動·植物을 그 곳에 가야만 볼 수 있는 경우가 許多한 형편이다.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터무니없는 우리의 落後가 과연 어떻게 빚어진 것인가?

그것은 해방후 현재까지 산업기술 爲主정책을 이끌어 온 고급기술관료들의 기초과학의 중요성에 대한 沒理解는 물론 국민적 自我 인식과 自尊의 터전이 과연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에 대한 哲學의 빈곤에 있었다 할 수 있다. 그나마 1926년 일본인이 만들었던 과학박물관이 6·25때 타버린이후 近年까지 내내 방치해 두었고 게다가 문교부에서 과학기술

처로 移管된 국립과학관은 1970년이후 지난 20년간 연구다운 연구보고서 1편 내지 않은 것은 물론 館長이 15번이나 바뀐 버림받은 死角地帶로 국내 학계로부터 期待와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지 오래인 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일이며 이것은 그 책임의 소재를 단적으로 응변하고 있기도 하다.

다행히 작년 2월에 文化部는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용산에 세운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소요예산 한푼 얻어내지 못하고 있어 이에 뜻을 같이하는 국내 20여개 학회, 단체가 지난 2월에 國立自然史博物館設立推進委員會를 창립하여 움직이고 있다. 10년내 과학기술 선진 7개국 진입이 목표라고 한다면 현재 각국의 보유 숫자나 국민소득 또는 人口比로 보아 우리나라에는 自然史博物館이 적어도 100여개는 만들어져야 한다. 그리고 인구의 1/4이 되는 1,000만명이상이 살고 있는 서울에는 國立中央自然史博物館이 반드시 있어 국가적 중심기관으로서 市, 道, 郡의 자연사박물관들을 선도, 지원해야 한다. 혹시나 과학기술처의 산하에서 국립과학관의 확장계획이란 명목으로 자연사박물관의 龍山基地 이전후 설립계획이 결코 방해받아서는 안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고 그 현재의 국립중앙과학관은 大田 EXPO를 기회로 과학기술 보급에만 주력하는 “과학·기술센터”로 육성,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국립자연사박물관은 우리나라의 自然 研究가 살아 숨쉬고 또 그곳에서 靑少年들이 자연에 대한 꿈과 愛情을 키우는 것은 물론 외국귀빈과 관광객이 우리 자연을 간단히 살펴볼 수 있는 곳이 되어 自然史博物館 하나 없다는 世界最下位の 국민적 창피와 수치를 하루바삐 씻어내야 한다.

만에 하나라도 지금 논의되고 있는 용산기지가 아파트나 다른 非文化的 공간으로 낙착된다면 우리들의 後世는 오늘의 우리를 과연 어떻게 볼까? 아마 文化的 삶의 가치와 뜻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無知와 利己의 世代로 단정할 것이다.